

고수익 댓글 알바 사기 판친다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에 광고 올려 “매달 수백만원 수입” 유혹

불황·구직난에 청년·주부 실업자 쉽게 현혹

대부분 상품 구입 유도 다단계... 피해 잇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28)씨. 학원비 마련을 위해 궁리하다 문서 입력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재용광고와 달리 실상은 인터넷에 회사 홍보 문구를 등록하는 작업이었다. 자신의 홍보글로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선 해당 업체의 휴대전화 구입해야만 했다.

극심한 불황과 구직난을 악용한 인

터넷 재택 근무 사기가 판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 다단계 업체들로 ‘집에서 쉽게 돈을 버세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고수익 보장’이라는 e메일 광고를 통해 구직자, 주부 등을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회원마당에까지 글을 올려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명세까지 공개하며 재택 근무

자를 구하고 있는 P사의 경우 채용광고와는 달리 인터넷에 회사 홍보글을 올려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하지만 고소득을 올리기는커녕 홍보글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전화 구입비만 날리고 상실감은 더 커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B사 역시 ‘하루 2~3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매달 30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모집했지만 이 회사는 화장품 소평물을 운영하면서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다단계 판매사였다.

이처럼 채용광고만 믿고 일을 시작했다 낭패를 본 사람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자 취업정보 사이트들은 “재

택 근무 구인정보를 통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를 바란다”는 경고문까지 올리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임모(34)씨는 “재택 근무 피해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음에도 업체들이 오히려 악의적으로 공개된 공간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며 “매일 삭제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YMCA 한 관계자는 “재택 근무를 하기 전에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불금 지급, 신분증이나 통장 제출 등과 같이 미심쩍은 부분이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되도록 지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권교체 위한 ‘민주가족 합동세배’

광주·전남 시민·진보단체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은 24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 YMCA 백제실에서 ‘민주가족 합동세배’ 행사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무원 썩은 민원인 영장기각 ‘논란’

법원 “정신치료 우선”... 시민들 “죄질 안 좋아 재범 우려”

검·경 “재청구 검토”

대낮에 광주시 청사에서 공무원들을 흉기로 찌른 민원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관민집 관사는 시정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

행방해)로 박모(54)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최근 기각했다.

관 판사는 “박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가족이 정신 질환 증세가 있는 박씨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감안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 공무원들은 원복 다리

에 깊은 상처가 난데다 사건 이첩에도 흉기를 들고 시정을 찾은 등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영장 기각이 지나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한 간부 공무원들은 “단순 범죄도 아니고 대낮에 흉기로 공무원들을 찌른 데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비치면 공권력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 근간이 흔들린다”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공무수행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판사가 이 같은 테러를 당해도 영장을 기각했겠느냐”며 영장기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애초 치료를 배려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던 경찰도 논란이 일자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이혼한 아내의 땅을 담보로 용자를 받으려고 했으나, 광주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용자가 힘들고 토지감정가도 낮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17일 시청사에서 난동을 부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은방 강도 4억 귀금속 어디에

북부경찰, 공범 동생 검거 5천만원어치 회수

경찰이 광주 한 금은방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형제를 붙잡았으나 수억원에 이르는 귀금속의 행방이 묘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은 이미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형 김모(33)씨에 이어 지난 19일 동생(28)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그러나 정작 불잡힌 이들 형제로부터 압수한 금품 규모는 현금 2440만원, 25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 2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모두 5170만원으로 피해 액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나머지 귀금속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4분에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금은방에 침입,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목걸이, 반지 등 시가 4억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00여 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

질렀으며, 동생 김씨는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 등 총 3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의 전선을 자르는 등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들이 빼앗아간 귀금속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범행 이후 10여일 동안 귀금속 일부를 장물로 처분해 도피자금을 마련한 뒤 나머지 귀금속은 모처에 보관했거나 공범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들 형제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압수한 금품 규모가 너무 큰 차이를 보여 나머지 피해품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구형 공판

금융비리 사상 최고 “무기징역”

김 양 부회장은 1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0일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 김후진(60) 부산2저축은행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4~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열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관련된 22명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대형 사기 등을 제외한 순수 경제·금융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뉴스

내일 지역 법관 평가 공개 주목

광주·대구경찰 공조 지살 시도 4명 구조

○...설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를 통해

만난 뒤 동반자살을 하려던 20~30대 4명이 광주·대구 경찰의 공조로 구조.

○...2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채무 등으로 자살을 고민하던 A(24)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동반자살자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광주에 사는 윤모(52)씨가 발견해 광주 남부경찰로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IP를 추적해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대구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는 것.

○...대구경찰은 A씨의 글을 보고 20대 2명과 30대 1명이 A씨와 연락을 해 포함에서 동반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한 PC방에서 발견, 전문 상담기관에 인계.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지방변호사회
향후 판결 영향 관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강행욱)가 지역에서는 최초로 법관 평가 결과를 오는 26일 공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첫 평가인만큼 좋은 판결사례, 지역발전 기여 등 긍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발표할 방침이지만 법관의 판결에 대해 해당 변호사가 첫 평가를 내린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4일 “서울·부산·창원·울산 등에 이어 전국에서는 다섯번째로 광주지법 및 산하 지원에 근무하고 있는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를 26일 오전 공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초 지역 내 변호사, 전남대 로스쿨 교수, 조선훈 법대 교수 등 10여명으로 법관 평가위원회를 구성, 3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해 진행된 재판과 해당 법관에 대해 평가한 바 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이후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일부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이번 평가는 이와는 별개”라며 “최근 회의를 거쳐 첫 평가에서는 법관에 대해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가입된 변호사는 모두 245명으로, 광주 185명, 목포 17명, 순천 35명, 해남 7명, 장흥 1명 등이 소속돼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출입시기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 2월1일